

당신이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처참한 용눈이오름의 모습입니다. 용눈이오름이 곧 오름 휴식년제에 들어갑니다.
우리 단체의 꾸준한 모니터링으로 용눈이오름의 참혹한 훼손은 잠시 멈추지만
아직 제주엔 제2, 제3의 용눈이오름이 있습니다.

1 Jan

1 신정 2 3 4 5 소한 6 7 8 9 10 정기이사회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대한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 Feb

1 2 3 입춘 4 5 6 7 8 정기이사회 9 10 11 설 연휴 12 설날 13 설 연휴 14 15 16 17 18 우수 19 20 21 22 23 24 25 26 정월대보름 제30차 회원 정기총회 27 28 2·28민주운동 기념일

훼손된 용눈이오름, 휴식년 오름으로 지정되었지만..



제주도정은 제주의 대표적 오름 중 하나인 용눈이 오름을 2021년 2월 1일부터 휴식년 오름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는 작년과 올해, 매달 새별오름과 용눈이오름을 모니터링하면서 훼손 상황을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심각한 훼손상황을 SNS와 언론을 통해 알렸습니다. 또한 용눈이오름과 새별오름에 탐방객이 급증하면서 두 오름 모두 심각한 훼손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휴식년 오름으로 지정하거나, 휴식년 지정이 불가하다면 탐방인원을 제한하는 정책 도입을 꾸준히 제주도정에 요청해 왔습니다.

이번 용눈이오름이 휴식년 오름으로 지정된 것은 우리 단체가 2년 동안 꾸준히 훼손 상황을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SNS와 언론을 통해 꾸준히 훼손된 오름의 실상을 알린 노력이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눈이오름 휴식년 지정은 심각한 훼손을 겪고 있는 용눈이오름에 꼭 필요한 조치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훼손이 많이 진행되어 좀 일찍 휴식년 지정이 이뤄졌다면 하는 아쉬움과 더불어 용눈이오름에 대한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도 숨길 수 없습니다.

한편, 새별오름과 같이 시간당 탐방객 수가 1천 명에 육박하는 오름에 대한 적절한 보전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최근 방송을 통하여 제주 오름이 자주 소개되고, 오름을 찾는 탐방객들이 다시 SNS를 통하여 오름을 알리면서 오름 탐방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관광지보다는 오름처럼 개방된 공간을 찾는 경향도 점점 강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오름보전계획이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1년부터는 오름 보전을 위해 좀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탐방객이 집중되는 오름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훼손되면 휴식년 오름으로 지정하고, 휴식년을 해제하면 다시 훼손되는 오름 관리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름은 맨 아래에서 꼭대기까지 탐방객의 발자국에 취약한 송이(스코리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름 보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탐방객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탐방데크 등 시설을 늘려 탐방객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단순한 오름 지형의 훼손만 바라보는 것이고, 생태계의 간섭이나 탐방의 질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정책입니다.

2020년 훼손 오름 모니터링 결론

휴식년 또는 적절한 탐방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

새별오름과 용눈이오름 모두 하루 최소 500명에서 최대 8,000명의 탐방객이 탐방을 하고 있다. 오름의 특성상 이런 규모의 탐방객에는 훼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가을철인 9월~11월에는 탐방객이 폭증하여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다. 두 오름 모두 휴식년 대상 오름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여러 여건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탐방객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1년 내내 제한이 어렵다면 최소한 가을철인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만이라도 탐방 인원 제한을 해야 한다.

새별오름 탐방매트 재시설이 필요하다.

새별오름은 올해 초에 탐방매트를 시설하였는데, 탐방객들의 급증으로 벌써 탐방매트가 마모되어 훼손되고 있다. 또한 답압으로 인해 탐방매트 사이로 초본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 탐방매트의 마모 속도가 빠르다. 따라서 새별오름 탐방매트를 재시설하여야 하며, 휴식년 또는 탐방 제한이 추가로 시행되어야 한다.

탐방문화에 대한 캠페인이 필요하다.

새별오름과 용눈이오름 둘 다, 입구에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안내판이 많이 시설되어 있어서 통합 안내판으로 정리가 필요하고, 두 오름 모두 초원오름으로 탐방로를 어디서든 벗어나 사진 촬영을 하고 있어서 탐방로를 벗어날 경우, 훼손되기 쉬운 오름환경(스코리아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 동영상 QR코드를 통해 볼 수 있도록 제작할 필요가 있다. 탐방 제한을 할 경우, 해설사를 동행하게 하여 훼손을 막고 오름의 가치를 알릴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규모 단체 탐방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봄철과 가을철 수학여행이 많은 시기에는 대형버스로 오름을 찾아 수백명 씩 한꺼번에 오름을 탐방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제주의 오름은 수학여행의 목적과 어울리는 곳이지만, 오름에 대한 이해없이 무의미하게 오름을 오르는 수학여행단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꼭 수학여행의 목적지로 오름을 선택하려 한다면, 오름에 대한 해설을 듣는 것을 전제로 하고, 여러 오름으로 나누어 분산하여 탐방하여야 한다.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 각 지역 교육청으로 협조 요청을 보내서 수학여행시 훼손이 심각한 오름에 대한 대규모 탐방을 피해주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다.

탐방로 공사 시 설계와 준공까지 모든 과정에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한다.

올해 용눈이오름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탐방로 및 정상에 복구공사가 진행되었는데, 복구 마대의 강도가 낮아 복구 마대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곳에 복구마대를 시설하여 공사비가 불필요한 부분이 소모되면서, 탐방매트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있다. 설계시 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를 막고 오름보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활동 이모저모

11월

- 11월 3일 [드림타워 대응] 드림타워 권리구제 안내서 배포활동
- 11월 4일 [성명] 드림타워를 위한 도정인가? 하수대란 반성없는 원도정은 반성하고, 사죄하라!
- 11월 5일 [훼손오름 모니터링] 새별오름
- 11월 6일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한 온라인 토론회 패널(홍영철 공동대표)
- 11월 7일 양용찬열사 29주기 추모제
- 11월 9일 [논평] 어디까지 도민을 속이겠다는 것인가. 드림타워를 위한 원도정의 고무줄 짓대 유감
- 11월 11일 [제2공항 대응] 거리 선전전
- 11월 15일 생태안내자 심화교육: 하수팀 현장교육
- 11월 17일 [제주인권정책라운데이브] 유엔 농민권리 선언과 제주의 농민 현황 토론회(홍영철 공동대표)
- 11월 18일 [제2공항 대응] 차량 선전전
- 11월 19일 회원참여 프로그램: 자철킴선 1박 2일
- 11월 24일 [보도자료] 드림타워 1,600객실 올스위트? 허위·과장 광고 및 사기 분양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검토
- 11월 25일 [제2공항 대응] 거리 선전전
[반박논평] 드림타워 호텔 관계자의 '일체형 스위트' 주장은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자기주장일 뿐
- 11월 26일 [훼손오름 모니터링] 용눈이오름
[제2공항 대응]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피케팅 [기자회견] 원희룡도지사는 관권을 동원한 제2공항 여론조작 중단하라!
- 11월 27일

12월

- 12월 2일 [제2공항 대응] 차량 선전전
- 12월 3일 [공동발표] 2021년 제주도 예산안 분석결과 발표
- 12월 6일 생태안내자 심화교육: 수료식 및 시상식
- 12월 8일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을 위한 공동행동
- 12월 9일 [제2공항 대응] 거리 선전전
기관지 통권 제59호 '여럿이함께숨이되자' 발간
- 12월 10일 [제2공항 대응]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피케팅
- 12월 17일 [훼손오름 모니터링] 새별오름
- 12월 18일 [드림타워 대응] 전시회 개최: 드림타워 불편 총정리 1 일차
- 12월 19일 [드림타워 대응] 전시회 개최: 드림타워 불편 총정리 2 일차
- 12월 21일 [훼손오름 모니터링] 용눈이오름
- 12월 2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 촉구를 위한 제주 기자회견[환경단체 공동성명] 덕천리 곳자랄 매각계획 철회하라!
기관지 통권 제59호 '여럿이함께숨이되자' 발송
- 12월 24일 [성명] 용눈이오름 휴식년제 지정을 환영하며, 오름 보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마련을 촉구한다!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명] 강충룡 도의원의 '동성애 반대한다' 혐오발언 규탄한다.
- 12월 28일 물환경교육 지도서 '제주의 수수' 발간

제2공항 반대 골목 선전전(11/11-12/10)



도민의 결정으로 제2공항 갈등을 종식시킬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특위와 제주도정이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인데요. 찬성 여론이 높은 성산읍에 대한 별도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제주도정의 공수가 여전한 갈등의 불씨를 남겼지만, 도민의 결정으로 제주의 미래를 선택할 길이 열린 셈입니다. 1월 중 실시될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 조사를 앞두고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활동가들은 제2공항의 문제를 알리기 위한 골목 선전전을 11월-12월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제주에 공항은 하나로 충분합니다!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한 온라인 토론회(11/6)



우리 단체의 교육의원제도 위원청구심판은 비록 기각되었지만, 제주학생인권조례 논란으로 교육의원제도 존폐문제는 더욱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청구한 학생인권조례를 교육의원들이 막아서면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확산되었기 때문인데요. 발제자인 송기춘 전북대 법학교수는 교육위원의 출마자격제한이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이해당사자 사이에서 아직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는 교육의원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왜곡하는 제도의 문제는 반드시 수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육의원제도 폐지 대응은 현재진행형입니다.

[훼손오름 모니터링] 새별오름(11/5), 용눈이오름(11/26)

얼마 전, 기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단체에서 2년간 모니터링을 이어온 용눈이오름이 2021년 2월부터 휴식년제에 들어간다는 것과 새별오름 역시 탐방객 제한 혹은 휴식년제 지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월 모니터링 결과 새별오름과 용눈이오름의 탐방객수는 모니터링단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새별오름의 시간당 탐방객 수는 1,000명에 육박했고 복구공사를 막 시작한 용눈이오름은 훼손 양상에 맞춘 복구공사가 아닌 오름 전체에 복구마대가 마구잡이식으로 뒤덮인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탐방로를 벗어나는 사람들은 두 오름에서 항상 목격되었는데요. 이미 사람들의



발길로 성하지 않은 용눈이오름의 휴식년제를 환영하며 새별오름의 휴식년제 지정 역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국립공원 확대지정을 위한 공동행동(12/8)



제주도정의 갈등조정 실패로, 제주 국립공원 확대지정 공청회에서 한바탕 소란이 있었습니다. 임업인 단체가 국립공원 확대지정에 반대하며, 공청회 저지에 나선 것인데요. 이들은 국립공원이 확대 지정되면, 버섯재배 등 임업활동이 불가능해질 것이라 주장하지만, 환경부는 확대 지정되더라도 임업활동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국립공원 확대를 환경부에 신청하고도, 임업인 단체와 소통에 손 놓고 있던 제주도정. 도정의 갈등해결 능력 부재가 결국 도민들 사이에 갈등을 양산한 셈인데요. 하루빨리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립공원이 확대 지정되길 촉구합니다.

생태안내자 심화교육: 제주의 수修秀(수료식)(12/6)



제주물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인 기획 프로젝트. 생태안내자 심화교육 '제주의 수수'가 긴 여정을 마치고,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교육생들은 지난 4월부터 용천수, 지하수, 하수에 대한 교육을 듣고, 팀별로 교육기획안을 작성해 시연을 하고 피드백 받는 시간을 거듭했는데요. 이번 교육은 교육생들의 열정적 참여로, 개근상 수상자가 4명이나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팀별로 모이고, 교육 내용을 만들어 보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포기하는 팀 없이 열정적으로 교육에 임해주신 모든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불편 드림

드림타워 불편 총정리 전시회



우리 단체는 주민 삶의 질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칠 드림타워 개장(18일)을 맞아, 12월 18일부터 이틀간 노형오거리 인도에서 「불편드림: 드림타워 불편 총정리」 거리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제주엔 드림타워가 들어올 자리는 없다'를 주제로 쓰레기부터 하수포화, 주차대란과 교통체증 문제 등 제주의 현실을 돌아보고, 드림타워가 도민 삶의 질에 미칠 피해를 알리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전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큐알코드를 확인해 주세요!



발걸음을 멈추고, 전시에 집중

거리전시회를 유심히 바라보는 시민



드림타워가 발생시킬 피해는?

이게 다 국제자유도시 때문이야!

전시를 마치고